

광양 이주민·순천 신도심 표심이 당락 변수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의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관심사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 정인화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깃발을 쫓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 경력은 '신인' 급이라는 점에서 4년 간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놓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네 변호사 활동을 하며 수년 간 지역민들과 호흡하면서 맺은 폭 넓은 인맥이 서 의원의 강점. 그럼에도, 지역구 관리 등에서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조직력 싸움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지원했던 같은 당 소속 광양시장 후보가 무소속에게 패한 것도 이같은 여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과 맞서 민주당 공천권을 가져오겠다고 나선 후보로는 권향엽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는 서 의원에게 패했지만 이번 리턴 매치에는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지역민과 호흡하며 민심을 살피고 있다.

광양 출신의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도 3선 도의원을 지내며 쌓은 의정경험과 맺은 인맥으로 총선 공천장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외 후보로는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이 출마 재배를 갖겠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진보당의 총선 후보자로 확정된 상태로, 전남도의회를 지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4·5 재보선에서 전주 을 선거구에서 진보당 소속 의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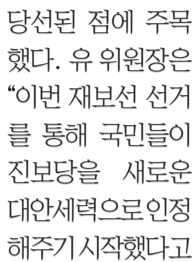
서동용



권향엽



유현주



이용재



추우용

당선된 점에 주목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재보선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진보당을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보고 정성을 다해서 유권자들, 지역민들 마음을 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에서는 추우용 당협위원장이 출마 입장을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광양·곡성·구례 을 순천 신대지구(해동면)가 합쳐진 선거구라는 점은 향후 민심 향배를 눈여겨볼 또다른 변수다.

타지역 이주 인구 비율이 높은 광양,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곡성·구례, 신도심인 순천 신대지구 주민들의 표심은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현 리턴매치·나주-화순 지역구도에 주목

나주·화순

내년 총선 나주·화순 선거구는 현재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진보당 후보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손금주 전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여기에 구충곤 전 화순군수도 최근 화순지역에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주-화순 간의 지역 구도도 주목된다.

신 의원은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후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몰고 온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선 탄탄한 조직력에 힘입어 다시 자리를 탈환했다. 신 의원은 현역 프리티엄 등을 감안할 때, 다자 간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구 전반에 쌓인 정치적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손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받은 압도적 지지를 재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구충곤 전 화순군수 출마도 주목된다. 민주당 출마 예상자 5명 중 4명이 나주 출신에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가운데 화순 출신은 구 전 군수가 유일하다.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6명이 출마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32%를 얻어 2등을 차지하는 등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을 운영하며 지역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다.



신정훈



구충곤



김덕수



김종운



손금주



안주용



최용선

이 밖에 지역 기반이 나름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김덕수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운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며 출마표를 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나주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방정치를 경험한 인물이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지역에 예산폭탄을 내리겠다는 각오다.

전남도의회를 지닌 안주용 진보당 나주시 지역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원 투표를 통해 22대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4개군 출마 후보자 봇물...선거구 개편 변수

담양·장성·함평·영광

담양·장성·함평·영광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4선 도전' 속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구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확정 과정 등이 변수로 손꼽히고 있다. 인구하향선 탓에 여수지역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들 우려가 큰 만큼,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거구 개편이 이뤄진다면 4개 지역이 합쳐진 이 지역구의 변동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지역이 합쳐진 탓에 이들 지역 전 입 군수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꾸준히 마법에 오르고 있다.

현역인 이개호 의원은 앞서 국민의당이 광주·전남을 석권하던 당시에는 지역 유일 한 민주당 의원으로 당의 명맥을 이어오던 이 의원의 4선 도전은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에 출마했지만 김한중 군수에게 석패한 바 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도 재도전의 뜻을 밝혔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최형식 전 담양군수도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군수는 함평군수를 3선 역임하며 함평나비축제를 전국적 축제로 키워내면서 지방자치 능력을 인정받았



이개호



김선우



김영미



박노원



박영용



이석형



장현



최형식

다. 최 전 군수 또한 담양군수를 세 번 연달아 지내며 담양을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정무특보를 지낸 장현 전 호남대 교수와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딸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영미 동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출마 의지를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용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아 선거구 관리를 위해 바깥 민심을 훑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 의원 3선 가도 탄탄...전 방위청 차장 출사표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인 김승남 의원의 강한 3선 도전 움직임에 맞서겠다고 나선 후보군이 두텁지 않은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재선 의원으로서의 잇점은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정활동이나 전남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 기반 등으로 3선을 위한 경쟁력은 갖췄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의 순천 결정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핵심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따른 정치력을 지적하는 여론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고흥에 우주발사체 연구소가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도 지정됐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도 선정된 상황에서 관련 시설 집적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을 외면한 것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권에서 현안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흥에서는 발사체 단 조립장의 순천 선정 이후 재경고흥군향우회, 고흥군변영회 등과 상경 집회 등을 벌이는 등 지역의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누가 제시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의 경우 전체 인구(6만 1615명)의 43.5%인 2만679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긴 지역은 전남에서 유일하다. 노인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김승남



김화진



한명진

중요하다는 게 지역 정서다. 김 의원에 맞서 민주당 공천을 노리는 인물은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 정도다.

한 전 차장은 방위사업 등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전 차장은 보성 출신으로 행정고시(31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낸 경제관료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대 석좌교수를 맡아 인지도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본격적인 지역 표심 다지기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본선에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흥 출신인 김 위원장은 여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여당에 지역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민심 공략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면서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알리는 대변자가 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력에 관한 모든 것,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 바람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풍요롭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에 대한 모든 것은 이곳에서, 한국전력거래소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